진리 평화 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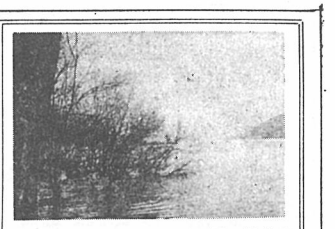
발행인 김 동 선
편집인 성 함 용
주간 안 영 효
발행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신문사
전화 ☎ 7128 (직통)
우편번호 13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270-1
인쇄인 조선일보사 방 우 영

# 외대학보

(1958. 3. 27. 제 3 종우편물인가)
(등록번호 제다 253호)

제 3 1 3 호
<주간>
1981년 3월 26일
매주 목요일 발행
(1년 구독료 5천원)
등록 1960년 7월 1일
창간 1955년 4월11일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이문촛점

태양의 자취로 볼을 재촉받는두 개의 삶이 수면으로 잘리웠다. 불위의것과 물 아래의 것이 소리죽여 고함친다.

「친구여! 뜨거운 불이다. 같은곳에서 태어난 까닭에 다른길을 걸어야하는가」 고.

## 81학년도 학도호국단 구성완료

### 총학생단과 단과 대학생단 분리

### 총학생장 김인회(S-3) 부학생장-김진수(M3)부장-8명차장-10명

81학년도 학도호국단 간부 임명식이 3월 21일 김동선총장, 각 단과대학 학장및 여러 귀빈을 모신 가운데 연수원강당 1층에서 있었다. 종합대학교로서의 제1차년도 학도호국단을 이끌어나갈 이들은 임명식장에서 총학생장을 비롯하여 「우리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 학도호국단 간부로 임명됨에 대해 책임이 중차대함을 알고 학생장을 위시하여 학문 인격 면마에 적극 참여토록하여 면학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선서했다.

81학년도 본교 학도호국단단위 제대 총학생장과 부학생장, 부서 간부, 각 단과대학 학생장및 각 학과 학생장등 간부 임명식이 3월21일 외국어연수원 강당 1층에서 있었다.

이번 간부진의 임기는 81년 3월부터 82년 2월까지이다.

총학생장및 부서간부의 인선방법은 예년과 달라진 점이 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부학생장을 총학생장이 인선한 것이 특이한 것으로, 이는 총학생장과 부학생장과의 관계를 긴밀케 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이다.

본교부에서 종보한 학도호국단 규칙준칙 개정명에 따라 각과에서 선발된 과학생장이 1학2일 코스의 수련회에서 직선으로 총학생장을 선출했으며, 또한 나머지 각 부서간부들은 총학생장이 효선하여 선출하고 총장이 임명하게 되어있어 직선과 간선의 혼합형태를 취하여 선발케 되었다.

한편 총학생장을 비롯한 부서간부들은 B학점이상의 성적과 개발연합 결과로 인선되었으며, 3월2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신임 간부진은 각과별로 고루 배정함을 원칙으로 삼았다.

각급 학생장과 학과 학생장단은 다음과 같다.

◇각급학생장

▲총학생장 김인회(S·3)
부학생장 김진수(M·3) ▲
총무부장 김재석(KE·3)
총무차장 김석환(R·2) ▲
기획부장 김남수(T·3) 기획차장 고은성(P·2) ▲문화차장 곽문석(C·2) ▲학술부장 김석진(Tu·3) 학술차장 김영주(KE·2) ▲체육부장 오병수(A·3) 체육차장 이경은(M·2) ▲심의부서간부들은 총학생장이 효선하여 선출하고 총장이 임장 장세은(E·3) 운영차장 신정섭(GE·2) ▲훈련부장 박순우(D·3) 훈련차장 임상현(BA·2) ▲여학생부장 이정희(I·3) 여학생차장 박면미(GE·2) 최선원(FE·2)

◇총장으로부터 김인회 총학생장이 임명장을 받고있다.

부부장 이윤재(Ir·3) 운영부장 장문석(Tu·3) 문예부장 안도희(A·3)

<법정대학>
학생장 조기인(D·3) 총무부장 이승국(D·3) 운영부장 정민초(PA·3)

<상경대학>
학생장 최양오(Ec·3) 총무부장 윤철형(Ec·3) 총무부장 곽도형(BA·2)

<사범대학>
학생장 변영종(KE·3) 총무부장 이별운(EE·3) 운영부장 이기자(GE·3)

<2부대학>
학생장 유진우(J·3) 총무부장 오상현(J·3) 운영부장 김순철(G·3) 여학생부장 임애경(E·3)

<음악대학>
학생장 하재환(A·2) 총무부장 김정민(E·2) 운영부장 조영동(G·2) 기획부장 이광민(A·2) 문예부장 김성현(G·2) 여학생부장 이미경(F·2)

<의학 학생장>
▲성악여대학 정경재(E·3) 정병효(F·3) 이성기(G·3) 이종림(R·3) 김기평(S·3) 정관섭(I·3) 이경수(P·3) 윤필호(N·3) 정남석(SW·3) ▲동양여대학 노혜림(C·3) 유석상(J·3) 김성동(A·3) 임종학(M·3) 장석구(Tu·3) 한순구(V·3) 한기태(H·3) 한태호(Tu·3) 김선구(Ir·3)▲법·상·사범대학 곽재화(D·3) 정헌주(PA·3) 김종빈(L·3) 김인조(T·3) 김린(Ec·3) 권윤현(EE·3) 안상권(FE·3) 장재은(GE·3) 박한현(KE·3) 이법수(Ic·3)▲2부대학 김홍도(E·3) 조정수(F·3) 고중림(C·3) 지광진(G·3) 주재명(R·2) 이인우(S·2) 김창권(J·3) 박희설(A·3) 김준태(T·3) 장성귀(BA·3) ▲음악 대학 이재일(E·2) 신종성(F·2) 김종남(G·2) 김윤덕(R·2) 김도영(S·2) 전종범(A·2)

<서양어대학>
학생장 장용혁(F·3) 총무부장 남진기(F·3) 운영부장 신유철(I·3) 학술부장 정은표(G·3)

<동양어대학>
학생장 최한우(Tu·3) 총

## 서클등록 신청서 접수

### 호국단에서 4월2일~4월 4일

학도호국단 기획부에서는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81학년도 서클 등록신청을 연수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학생회관 3층에 비치되어 있는 서클등록허가원을 이용해야 하며 80학년도 사업실적 보고서와 81학년도 사업계획서및 예산청구서등이 포함되어 있다.

호국단에서는 기존의 인가서클이외에도 학생과의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서클은 최대한 수용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년도에 서클 룸으로 사용할수 있는 곳은 총 25개인데 반약에 25개이상의 서클이 허가가 될 경우에는 하나의 룸을 두개의 서클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 도서관 증설

### 제5, 6 열람실

3월23일 도서관 4층에 제5, 6열람실이 증설되었다. 새로 마련된 616석을 포함, 총 열람석수는 1554석이 되었는데 이로서 전교생의 약 22%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증설은 종합화에 따른 열람실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학생의 이용이 많을것에 대비해 좀 더 정숙한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신입생 환영회

### 학술과 오락의 다양한 조화

81학년도 신입생 환영회가 본교 학도호국단 주최로 '3월30일부터 4월 2일까지 4일간에 걸쳐 열림 예정이다.

이번 신입생 환영회는 학술적인 면과 오락적인 면이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 「초청강연회」 「세민씨방영」 「연극공연」 「신입생 환영의 밤」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극공연은 외대 연극반의 「아일랜드」가 공연될 예정이며 신입생 환영의 밤에는 「모두 모여 이밤을」이란 시간으로 보컬 (Vocal.) 초청 가수 출연, 독창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행사 일정표는 다음과 같다.

▲3·30(월) 18:00~21: 시청각교육원(2210) : 세민씨녹화방영 ▲3·31(화) 10: 00~13:00 16:30~19:30 시청각교육원(2210) : 세민씨녹화방영 13:30~15:30 16: 30~18:30 학생회관 4층 소극장 : 연극공연 13:30~14:30 15:30~16: 30 본교강당 : 초청강연회 15:30 16:30~18:30 학생회관 소극장 : 연극공연 14:30~16:00 본교강당 : 초청 강연회 안병욱교수「미래인과 자아발견」▲4·1(수) 10:00 ~ 13:00 16:30~19:30 시청각 교육원 : 세민씨 녹화방영 13:30~15:30 16:30~18:30 학생회관 4층 소극장 : 연극공연 13:30~14:30 15:30~16: 30 본교강당 : 초청강연회 여동찬교수 「외국인교수가 보는 미학인」 손봉호 교수 「미학과 학문」▲4·2(목) 10:00~13:00 13:30~16:30 시청각교육원 : 세민씨 방영 13: 30~15:30 학생회관 4층 소극장 : 연극공연 18:00~20: 00 본교운동장 : 신입생 환영의밤 「모두모여 이밤을」

### 기독학생반 신앙강좌

본교 기독학생반에서는 3월20일 금요일 오후 5시~8시에 기독학생반 룸에서 「낙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한사람 선교회 대표 김한석연사를 초청하여 신앙강좌를 열었다.

60여명의 외대인이 참석한 가운데 입속하고 진지하게 진행된 이번 강연회는 대학생들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학생증 재발급

학생처에서는 추가등록자를 위해 4월1일부터 3일까지 사흘에 걸쳐 학생증을 재발급한다.

학생증 재발급에는 영수증과 증명사진 2매가 필요하며, 이번 기간내에 발급받지 못한 학생은 재발급이 없다고 한다. 1일에는 서양어대학, 2일은 동양어대학과 사범대학, 3일은 법정대학, 상경대학, 문리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발급을 할 예정이다.

## 원우회 회장 선출중

### 무역 대학원회장에 송용종씨

각 대학원별 원우회장선거가 3월19일부터 각 원내별로 실시되고 있다.

무역대학원에서는 3월19일 사회과학관 204호에서 전대학원생이 모인 가운데 석사16기인 송용종씨를 종학생회장으로 선출했다.

교육대학원에서는 각 전공별 1명씩 11명 정도의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운비위원회에서 3월23, 24일 양일간 사전회의를 거쳐 원우회장의 선출 방식및 정확한 일시등을 결정했는데 선거는 3월말쯤 실시될 예정이다.

음악대학원은 신입생회의후 4월초순쯤 3기생조에서 원우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또한 일반대학원에서도 4월내로 원우회장의 선출이 있을 예정이다.

(대학학원은 무역대학원 명칭이 종학생회장이고 그밖은 원우회장임.)

## 복수전공대상자확정

### 총 34명중 V과-9명

교무처에서는 81학년도 복수전공 이수 신청자 34명을 이수 대상자로 확정했다.

81학년도 복수전공 이수대상자는 베트남어과 9명, 스웨덴어과 4명,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3명, 중어과·포어과·태국어과·파탄어과·이탈어과·헝포과 각 2명, 불어과·노어과·이태리어과·인도어과·터어키어과·독교과각 1명씩으로 복수전공을 원하는 대상학과는 영어과15명, 경제학과 9명, 서반아어과 4명, 무역학과 4명, 중어과 1명, 정치·외교학과 1명으로 베트남어과가 가장 많은 복수전공 이수신청을 허가받았으며 복수전공을 원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영어과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복수전공제도는 3학년까지 소요학점을 이수하고 전체 성적평균 C+(평점2.5)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다.

각 학부의 복수전공 이수를 위한 부전공및 복수전공의 이수학점은 한산하여 73학점으로 다음과 같다.

▲성악여대학 73학점(부30 복43)

▲법정·상경대학 73학점 (부21 복52)

▲사범대학 73학점(부21 복52)

### 최종 등록률 97.6%

경리과에서는 지난 21일로 마감한 추가등록에서 1차등록때 등록한 학생과 추가등록을 합한 최종등록률이 97.6%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 1차등록때의 등록률은 78%였으며 이번의 추가등록때도 등록을 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등록은 다시 실시되지 않는다고 한다.

## 박용서군 입상

### 제3회 세계 바둑 선수권—6위

본교에 재학중인 박용서(Ir—3)군이 지난 3월10일부터 15일까지 6일동안 일본 도오꾜오에서 열렸던 제3회 세계바둑선수권대회에서 6위에 입상했다.

당초 상위입상을 목표로 박용서군과 박상동군 등일도군 3명이 참가했는데 강한 중공세에 밀려 각각 4, 6, 9위에 머물고 말았다.

한편 기계에서는 한국의 대표들이24일간의 합숙훈련가지 해가며 훈련을 거친후 출전했기 때문에 비록 중공에 지기는 했으나 실력면에서 크게 뒤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박용서군은 79년도 외대 국수이며 80년 전국대학아마 국수였다.

## 이태리무역관 방문

이태리어과에서는 3월21일 이태리 무역관의 초청으로 파학생장을 비롯하여 30여명의 학생들이 이태리무역관을 방문했다.

「이태리무역관」은 이태리대사관을 겸외하고는 한국과 이태리의 유일한 공식기관으로 이날 학생들은 한·이 양국간의 무역관계 전개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 불교학생반 교리강좌

신학기를 맞아 불교학생회에서는 신입 법우들의 교바른 불교관을 심어주고자 기초 교리 강좌를 19일, 20일, 22일 3일간 인문과학관 1408실에서 열었다. 동국대학교의 이광표(李廣杓)거사를 모시고 열린 이 법회에서는 불교전반에 관한 기초교리와 불교적 인생관등의 교리를 설명했다.

### 후기졸업 예정자 졸업시험

본교 교무처에서는 1980학년도 서양어 대학, 동양어 대학, 사범대학(한교과 제외)의 후기 졸업예정자 졸업시험을 4월9, 10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시험은 일반과목이 9일, 언어실습 및 회화가 10일에 각각 실시하고 한교과의 경우는 졸업논문으로 대치킬것이며 시험 시간표는 2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 알 림

본보 편집위원및 81학년도 논설위원을 아래와 같이 위촉 임명하였음을 알립니다.

(존칭생략)

편집위원 : 김형필

논설위원 : 김창근 민병균 서일균 이춘진 이인웅 정진석

▲전일제 수업 실시
—그릇된 인식으로 아우성
▲교련 유고절식제 반환
—뭥금…어디로 가야하나?

## 제29기 수습기자 모집

금년 4월11일로 창간27주년을 맞는본 「외대학보」에서는 새학기를 맞아 대학 언론에 뜻을둔 유능하고 참신한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발전하는 외대의 아카데미한 분위기를 진작시키기위해서 예지와 감성을 겸비한 일꾼을기다립니다.

모집부문 · 인원 = 일반 · 사진 · 컷기자 약간명
자 격 = 1학년 남 · 여재학생
제출서류 = 본사 소정 응시원서
마 감 = 4월11일 (토)
시험일시 = 4월15일 (수) 오후 5시
시험과목 = 국어 (한문포함) 상식 · 기사작성 · 논문 (또 사진 · 컷기자는 실기및 면접
접시험장소 = 본관 326호
※기타 자세한 것은 본사로 문의 바람.

외 대 신 문 사

민俗競技의 再発見 ③ 車戰놀이

근검·절약·저축의 생활화

# 우리 民族을 이끌어온 뚝심과 끈기

**車戰놀이**는 高麗초부터 慶北 安東지방에서 전승되어 온 우리 고유의 민속경기—. 동체싸움이라고도 불리는 이 경기는 매년 正月 上元(보름날)에 거행된다. 예전엔 지금의 慶北 盈德 남쪽에서 洛東江 둑까지 약 700m, 法興에서 西岳寺앞까지 약 2.5km가 되는 드넓은 빌판에서 수만명의 郡民들이 모여 경기를 벌인 것으로 관계문헌은 전하고 있다. 이 경기는 後百濟의 甄萱과 高麗의 王建이 싸울 때, 安東에서 三太師(金宣平·權幸·張吉)가 安東군민들과 함께 王建을 도와 甄萱을 물리친 후 王建이 배운 馬戰찬치에서 유래됐다고 현지 古老들은 말한다.

**경기**에 필요한 동체(수레바퀴의 安東사투리)는 매우 정성들여 만들어진다. 우선 아래위가 곧바르고 단단한 참나무로 지름 10~12cm의 体木 2개와 지름 5~6cm, 길이 28~120cm의 기로새 5개, 지름 3.4cm의 고배대 1개를 만들고 지름 6cm의 울림대는 물레구워 적당히 굽힌다. 또 삼(麻), 칡(葛), 머리털(毛髮) 등을 세가닥으로 꼬아 가르새위에 얹힐 방석과 결박줄도 만든다. 방석과 동체의 각 부분을 동여댈 때는 물을 뿜어가며 메로 다진기도 한다.

**동체**가 준비되면 놀이판으로 나아가 민첩하고 튼튼한 사람은 머리꾼으로, 몸집이 큰 사람은 앞채꾼으로, 행동이 둔한 사람은 뒤채꾼으로, 일종의 유격요원은 놀이꾼으로 각각 세워 大會戰에 임한다. 하늘을 찌르는 함성과 열띤 응원의 농악소리가 가득하다. 드디어 상대편의 主力지점을 파악한 대장은 오른쪽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고 팔을 뒤에서 앞으로 흔들며 전면공격을 명한다. 동체꾼들은 대장의 신호에 따라 일제히 팔장을 끼고 어깨로 상대편을 밀어내기 시작한다. 전진, 후퇴, 회전이 거듭되지만 승부는 쉽사리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마침내 상대편의 동체를 점령하면 순식간에 상대편 동체의 방석과 결박줄을 들어서 하늘높이 던지며 「월사 달사」 승리의 환호성을 터뜨린다.

**우리**는 車戰놀이에서 우리조상들의 건강한 기질의 세계를 읽는다. 경기가 아무리 격렬해지도 주먹이나 발길질을 해서는 안되며 측면이나 후면을 공격해서도 안된다. 경기중에 머리칼이 넘어지면 상관은 곧 후퇴하여 넘어진 사람이 일어난 다음 다시 거슬러 조상대로도 이어져 내려온 민속경기 車戰놀이—. 이 경기의 승패는 특심과 끈기와 단결력에 달려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24호로도 지정된 이 車戰놀이를 현대감각에 맞게 발전 보급시켜 우리 민족의 특심과 끈기를 전승하고, 단결력을 함양시키는 범민중적 경기로 키워나갔으면 한다.

▲現代

## 사설

# 봄과 더불어 배움에 활기를

책이나 읽듯은 계절인 것 같다. 그나마 그 봄이 오기까지 너무나 추웠고, 변덕스럽고, 또한 지루한 겨울이 지나갔다.

그러나 그 추운 속에서도 남몰래 움이 트고, 그 움이 활력 있어, 파사한 옷이 되어, 그 긴 겨울을 잊게 하여, 새로운 희망에 부풀게 하는 계절이다. 겨우내 광 속에 가루이 두어, 말라 비틀어진 잎속에서도 새 싹이 돋아나는 철쭉과도 같이.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금방 손 밖으로 달아나 버린 것이 우리가 곧 곧 이상이지만, 그것이 곧 새로운 모습으로 탄장하여 우리의 면전에 나타나고 있다. 기나 긴 겨울을 되돌아 보고, 새롭게 봄을 맞이해야 겠다.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새 싹이 돋아나는 계절에 즈음하여 한번쯤 생각해 볼 찌라다.

봄이 오면서 농부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의 앞서 (鼎鼎) 의 밭을 갈고, 지식의 씨앗을 뿌려야 겠다. 가을에 그 알찬 결실을 거두기 위하여. 그리고 그 풀씨한 봄의 휴닙새와 같이 우리도 돌씬 자라야 겠기에.

그런데 과연 농부가 씨를 뿌리고 두었을 때든, 그, 농부의 주인이 우리들도 부지런히, 그리고 빈틈없이 우리의 곁보을 지켜 섰는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 우리도 우리의 안목보다 바깥 쪽을 너무 의식하지는 않았는지, 어쩌면 이것은 남학생의 앞복과 타이에서, 여학생의 화장과 하이·힐에서 나타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왜 그것을 내팽 하지 않고, 오늘 하고 있는지. 학생은 결코 내일의 주인공이지 오늘을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기에 앞서 앞으로 그 현실을 헤쳐나가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 대학이란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실한 것 같다.

현실의 모든 모순을 광정 (匡正) 할 듯한 그 기세라는 책이나 비조직인 모습이 강의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교수의 일방적인 지식의 전수 (傳受) 만을 기대하여 활기를 잃게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강의실의 모습인 것 같다. 학생이 깨어하고, 나아가 교수에게 도전하고, 자신과 나라를 위한 바르고 살아 있는 지식과 판단력을 키우는 진지한 모습이 아쉬운 것 같다.

학생은 세속적인 내일의 곱 (좋은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것과 같은) 에 도취되어 있고, 교수는 시간을 메운다는 형식적인 외무에 쉴새없이 있는 것은 아닌지. 비록 지식과 경험에 있어서는 깊은 차이가 있겠지만, 교수와 학생간에는 결코 먼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푸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의 작업을 꾸준히 계속해야 할 것 같다.

생동하는 봄과 더불어, 함께 생각하고, 함께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조용하면서도 활기에 찬 모습들이 도서관과 강의실에 가득차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진인한 사람이 새신의 계절이 되고, 이 때에 부린 씨앗이 굳건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원한다.

# 논단 샤마니즘에 관한 소고

조 진 태

무속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배태 (胚胎) 된신앙으로서 수천년간 민중의 정신적 지주였고 민중에게 의지하고 의존하여왔다. 상류사회는 시대사조의 변천에 따라동요와 격변이 계속되었으나 민중의 생활은 나무의 뿌리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전통의 계승을 지속해 왔다. 무속은 신이라는 외경적 (畏敬的) 존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친근감이 감소될지 모르나, 무속의 신은 현세 인간의 그대로의 모습이며 무기 역시 민중의 생활과 사고를 그대로 귀향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 I

### 1. Shamanism 의 정의

샤마니즘은 한국을 비롯하여 북방문화권에 속하는 만주 시베리아 중국 몽고 일본등 아시아 전반의 종교현상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아메리카 인디언의 주술행신앙 (守護靈信仰) 이나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주술신앙 (呪術信仰) , 그리고 에스키모족에게서도 샤마니즘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Shamanism이란 말은 Tungus 말의 Saman이 러시아어를 통하여 오늘날 일반적으로 쓰이게 된 말이다. 통구스족은 샤제 (司祭) 를 「사만」이라고 하는데 그 어원에는 「흥분하는 자」「도발하는 자」「자극하는 자」등의 뜻이 함축되어있다. 그러므로 샤마니즘은 신명이 내려서 흥분하여 날뛰는 사람, 곧 Shaman의 종교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살만교 (薩滿敎) 라고 음차 (音借) 하여 쓰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무당의 종교라 하여 무교 (巫敎) 라고 한다. 이들에서도 알면 즉 무당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종교적 일체현상을 샤마니즘이란 말로 생의한다.

### 2. Shaman (무당) 에 관하여

한국의 샤먼은 대개 여성이고 그들은 보통 무녀 (巫女) , 만신 단골(당골) 등으로 불리워진다. 남성 무당은 「박수」(博士) 라 하고 밀교라는 점에서 일종의 신비성 지주였고 민중의 의지하고 의존하여왔다. 상류사회는 시대사조의 변천에 따라동요와 격변이 계속되었으나 민중의 생활은 나무의 뿌리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전통의 계승을 지속해 왔다. 무속은 신이라는 외경적 (畏敬的) 존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친근감이 감소될지 모르나, 무속의 신은 현세 인간의 그대로의 모습이며 무기 역시 민중의 생활과 사고를 그대로 귀향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 I

### 1. Shamanism 의 정의

샤마니즘은 한국을 비롯하여 북방문화권에 속하는 만주 시베리아 중국 몽고 일본등 아시아 전반의 종교현상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아메리카 인디언의 주술행신앙 (守護靈信仰) 이나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주술신앙 (呪術信仰) , 그리고 에스키모족에게서도 샤마니즘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Shamanism이란 말은 Tungus 말의 Saman이 러시아어를 통하여 오늘날 일반적으로 쓰이게 된 말이다. 통구스족은 샤제 (司祭) 를 「사만」이라고 하는데 그 어원에는 「흥분하는 자」「도발하는 자」「자극하는 자」등의 뜻이 함축되어있다. 그러므로 샤마니즘은 신명이 내려서 흥분하여 날뛰는 사람, 곧 Shaman의 종교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살만교 (薩滿敎) 라고 음차 (音借) 하여 쓰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무당의 종교라 하여 무교 (巫敎) 라고 한다. 이들에서도 알면 즉 무당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종교적 일체현상을 샤마니즘이란 말로 생의한다.

### 2. Shaman (무당) 에 관하여

한국의 샤먼은 대개 여성이고 그들은 보통 무녀 (巫女) , 만신 단골(당골) 등으로 불리워진다. 남성 무당은 「박수」(博士) 라 하고 밀교라는 점에서 일종의 신비성 지주였고 민중의 의지하고 의존하여왔다. 상류사회는 시대사조의 변천에 따라동요와 격변이 계속되었으나 민중의 생활은 나무의 뿌리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전통의 계승을 지속해 왔다. 무속은 신이라는 외경적 (畏敬的) 존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친근감이 감소될지 모르나, 무속의 신은 현세 인간의 그대로의 모습이며 무기 역시 민중의 생활과 사고를 그대로 귀향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전집자주>

그밖에도 「복술」(卜術) , 「세사」(占士) , 「복자」(卜師) 등으로 불리워지기도 한다. 그리고 여성 무당의 남편은 「화랭이」 또는 「양중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때개 무악 (巫樂) 의 반주를 맡는다.

<기> 무당의 분류

무당은 크게 직업무 (Professional Shaman) 와 가무 (Family Shaman) 로 나눌 수 있는데 직업무는 숙련된 무당으로서 「굿」를 직업적으로 행하는 무당이다. 그리고 가무는 가정에서 필요에따라 간단한 「고사」나 「푸닭」을 드리는 주부를 일컫는 말이다.

가무는 비직업적으로 가정의 간단한 무사 (巫事) 는 행하지만 미숙하여 큰 「굿」행사는 못한다. 일반적으로 무당이란 말할 때 가무는 제외된다.

직업무의 입무과정 (入巫過程) 을 경로에 따라 분류하면 경제는 보통의 직업인 무당답을 갖게 계승하고 있는 세습무 (世襲巫) 로서 전라도와 충청도 지방에 많이 분포한다. 특제는 평범한 사람에게 무병 (巫病) 이라는 과정을 통해 신이 내려 어쩔수 없이 무당이 되는 강신무 (降神巫) 로서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하며 전체 무당의 반이상을 차지한다.

세제는 생계의 수단으로 갖추는 밑천 백복가지고 직업적으로 굿을 하는 학습무 (學習巫) 이다. 세습무는 사제 (priest) 사만으로 예능면에서 뛰어났고 강신무는 카리스마적 (charismatic) 사만으로 영험이 용한 무당이다. 학습무는 면밀한 학습이 무당으로 「전무당 (先巫堂) 사발합는다」는 대개 이름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나> 入巫過程 (입무과정)

무당은 일종의 원시적인 성직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속인이라는 말인 (凡人) 으로서는 무당이 될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무당이 되려면 신명을 받아 직업적으로 무당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세에서는 낙관주의자, 기회주의적인 반항자, 자기도취적인 광신자…이들 모두가 비합리적 신념에 빠져버린 바보같은 천재가 아닐까?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섬사리 결망하지 않는다. 원래 회망이란 신념에 따르는 기분이다. 이에 반해 비합리적 신념은 절망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개인적인 절망과 허무를 파격한 폭력수단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본래 절망에다 기초를 둔 진보적이라는 한번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것이다. 그것은 「고지식한 머리 속의 백일몽」이어서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또한 생명에 대한 사랑을 결여하고 있다.

▲역사의 발전이란 현존질서를 파괴해 진보적인 질서에로 변화시키는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것이다. 이러한진보란 바로 과학에 입각한 합리적인신념일이는 불가능하다. 절망과 허무에란 신광기 (狂氣) 를 낳는 위험한 신념이다.

신에 반항하여서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행위로부터 인간의 문명이 시작된 것처럼, 진보란 불합리한 권위에 대한 불복종의 질서부터 시작될지 모른다. 올바른 일을 「올바르다」하고 옳지않은 일을 「옳지않다」라고 단언할수 있는 신념과 용기, 결요불굴 (不撓不屈) 의 정신만이 역사를 이끌어나갈 참조적인 힘인 것이다.

<권>

# 민족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원시종교

## 무아경은 역사로 부터의 해탈이며……

## 일종의 죽음의 체험상태

<나> 入巫過程 (입무과정)

무당은 일종의 원시적인 성직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속인이라는 말인 (凡人) 으로서는 무당이 될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무당이 되려면 신명을 받아 직업적으로 무당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세에서는 낙관주의자, 기회주의적인 반항자, 자기도취적인 광신자…이들 모두가 비합리적 신념에 빠져버린 바보같은 천재가 아닐까?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섬사리 결망하지 않는다. 원래 회망이란 신념에 따르는 기분이다. 이에 반해 비합리적 신념은 절망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개인적인 절망과 허무를 파격한 폭력수단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본래 절망에다 기초를 둔 진보적이라는 한번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것이다. 그것은 「고지식한 머리 속의 백일몽」이어서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또한 생명에 대한 사랑을 결여하고 있다.

▲역사의 발전이란 현존질서를 파괴해 진보적인 질서에로 변화시키는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것이다. 이러한진보란 바로 과학에 입각한 합리적인신념일이는 불가능하다. 절망과 허무에란 신광기 (狂氣) 를 낳는 위험한 신념이다.

신에 반항하여서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행위로부터 인간의 문명이 시작된 것처럼, 진보란 불합리한 권위에 대한 불복종의 질서부터 시작될지 모른다. 올바른 일을 「올바르다」하고 옳지않은 일을 「옳지않다」라고 단언할수 있는 신념과 용기, 결요불굴 (不撓不屈) 의 정신만이 역사를 이끌어나갈 참조적인 힘인 것이다.

<권>



▲우리는 오늘날까지의 역사나 과학, 문명이 소수 엘리트와 다수 범인 (凡人) 들 사이의 합작품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는 반대로 인류가 생아온 성업 (成業) 을 깨트렸던 역사의 파괴자들은 주로 천재—비합리적 신념을 가진 엘리트—들이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세계를 육방의 대상으로 삼아 소유하려 했거나 자신의 허무와 절망, 무력감등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화풀이 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예는 근세에 이르러서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히틀러나 핏슬러 나가 등장하고 나치즘, 파쇼정권이란 말이 횡행하면 시대가 그런 오태 전은 아닌 것이다.

▲역사의 창조자나 파괴자나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나름대로의 신념을가지고 행동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일선상에서의 시작이 정상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이가지고 있었던 신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Erich Fromm은 「신념이란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이며 참된 가능성을 알게되는 것이며, 속에 때태 (胚胎) 되어 있는 것을 발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합리적 신념이란 표면을 뚜렷고 분명을 핵심까지 투시하는 지식과 이해의 능력에 기인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그 속에 안고 있는 현재를 통찰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합리적 신념은 어떤 주어진 것이 진실한 것이건 아니건간에 그것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여 맹목적으로 그것에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있다. 제세에서는 낙관주의자, 기회주의적인 반항자, 자기도취적인 광신자…이들 모두가 비합리적 신념에 빠져버린 바보같은 천재가 아닐까?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섬사리 결망하지 않는다. 원래 회망이란 신념에 따르는 기분이다. 이에 반해 비합리적 신념은 절망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개인적인 절망과 허무를 파격한 폭력수단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본래 절망에다 기초를 둔 진보적이라는 한번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것이다. 그것은 「고지식한 머리 속의 백일몽」이어서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또한 생명에 대한 사랑을 결여하고 있다.

▲역사의 발전이란 현존질서를 파괴해 진보적인 질서에로 변화시키는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것이다. 이러한진보란 바로 과학에 입각한 합리적인신념일이는 불가능하다. 절망과 허무에란 신광기 (狂氣) 를 낳는 위험한 신념이다.

신에 반항하여서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행위로부터 인간의 문명이 시작된 것처럼, 진보란 불합리한 권위에 대한 불복종의 질서부터 시작될지 모른다. 올바른 일을 「올바르다」하고 옳지않은 일을 「옳지않다」라고 단언할수 있는 신념과 용기, 결요불굴 (不撓不屈) 의 정신만이 역사를 이끌어나갈 참조적인 힘인 것이다.

<권>

### (나) 무구 (巫具)

무당이 굿할때 쓰는 도구를 「무구」라 칭하는데 대개 방울과 북과 거울이다. 이 세 가지를 선신 (good spirit) 을 좋아하고 악신 (evil spirit) 은 무대에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무당은 이밖에도 「부채」「신답」「삼지창」등을 사용하기도하며 「폐지」와 「전립」을 착용한다. 또, 붉은 것에 색의 깃발을 꽂은것을 쓰기도 한다. 타문신화의 전부인, 세계라는 것도 무구를 성물화 (聖物化) 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 (Ⅱ) 샤마니즘의 현실과 장래

민족집단의 형성과 함께 발생하여 민족생활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 왔던 무교는 단순히 미개사회의 원시 종교라 하나요, 또 문명사회인 오늘날에는 사라져 없어진 고대종교도 아니다. 무교는 고대로 부터 우리들의 생활을 규제하고 삶에 의미와 근거를 부여해오면서 역사속을 흘러온 살아있는 종교현상이다. 외래문화를 받아들이기 전에 한국에는 아무 역압없이 무교가 노출되어 있었다. 이 무교의 바탕위에서 외래문명—불교·유교·기독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 외래 문명들은 기반을 갖아 잡아 마치 무교를 역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교는 이 외래 문명을 흡수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들에 눌려 한국문화의 표면으로부터 사라져 가고 있으나 아직도 한국문화의 심층에서 그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다. 아직도 시시 때때로 「부작씨」가 열리고 정부의 수탈을 거절과 행정조치속에서도 그칠줄 모르는 무당들의 「푸닥거리」와 「굿」이 행해지고 있는것이다.

이렇듯 무교는 우리 민족 신앙의 기반과 핵심을 이루는 원시 종교로서 아직도 많은 민중에게 살아있는 신앙이요 사상이다. 한국인들은 결혼을 하면서 「성주굿」이 행해지고, 이사를 하면 「고사」를 지내고 「부가 (巫家) 」와 「손님굿」이 복이하고 경상도 지역은 「별신굿」도 행하여진다.

굿의 기본요소는 생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신을 불러오는 초청 절차이다. 무당은 먼저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중에서 부정한 사람들을 찾아서 쫓아낸다. 그리고 부정거리를 초청하여 오는 신의 길을 정화한다. 둘째는 불러내린 신앞에서 무악 (巫樂) 에 맞추어 노래하며 춤을 추며 신을 즐겁게 해 주는 과정이다. 무당은 춤을 추며 간간이 술을 마시는데 춤이 절라지면 무당은 입신 (入神) 상태로 들어간다. 이때 무방은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 남이 시퍼렇게 선 칼날 위에서도 사론히 춤을 추기도 한다.

세째는 이러한 입신상태에서 신의 뜻을 알려주는 신화과정인 것이다. 이때의 무당은 곧 신의 사자로 간주되며 말씀자는 무당 앞에서 정결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무장하고 의하여 표현되는 신의 계시를 경청한다. 굿의 극치는 여기에 있다. 무당은 죽음자의 목소리를 내기도하며 때로는 공중에서 취파람소리를 내기도하고, 옛여조 조상의 뜻을 가족에게 알리기도 한다.

### (나) 무구 (巫具)

무당이 굿할때 쓰는 도구를 「무구」라 칭하는데 대개 방울과 북과 거울이다. 이 세 가지를 선신 (good spirit) 을 좋아하고 악신 (evil spirit) 은 무대에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무당은 이밖에도 「부채」「신답」「삼지창」등을 사용하기도하며 「폐지」와 「전립」을 착용한다. 또, 붉은 것에 색의 깃발을 꽂은것을 쓰기도 한다. 타문신화의 전부인, 세계라는 것도 무구를 성물화 (聖物化) 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 (Ⅱ) 샤마니즘의 현실과 장래

민족집단의 형성과 함께 발생하여 민족생활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 왔던 무교는 단순히 미개사회의 원시 종교라 하나요, 또 문명사회인 오늘날에는 사라져 없어진 고대종교도 아니다. 무교는 고대로 부터 우리들의 생활을 규제하고 삶에 의미와 근거를 부여해오면서 역사속을 흘러온 살아있는 종교현상이다. 외래문화를 받아들이기 전에 한국에는 아무 역압없이 무교가 노출되어 있었다. 이 무교의 바탕위에서 외래문명—불교·유교·기독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 외래 문명들은 기반을 갖아 잡아 마치 무교를 역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교는 이 외래 문명을 흡수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들에 눌려 한국문화의 표면으로부터 사라져 가고 있으나 아직도 한국문화의 심층에서 그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다. 아직도 시시 때때로 「부작씨」가 열리고 정부의 수탈을 거절과 행정조치속에서도 그칠줄 모르는 무당들의 「푸닥거리」와 「굿」이 행해지고 있는것이다.

이렇듯 무교는 우리 민족 신앙의 기반과 핵심을 이루는 원시 종교로서 아직도 많은 민중에게 살아있는 신앙이요 사상이다. 한국인들은 결혼을 할때 「성주굿」을 하고 「고사」를 지내고 「부가 (巫家) 」와 「손님굿」이 복이하고 경상도 지역은 「별신굿」도 행하여진다.

굿의 기본요소는 생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신을 불러오는 초청 절차이다. 무당은 먼저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중에서 부정한 사람들을 찾아서 쫓아낸다. 그리고 부정거리를 초청하여 오는 신의 길을 정화한다. 둘째는 불러내린 신앞에서 무악 (巫樂) 에 맞추어 노래하며 춤을 추며 신을 즐겁게 해 주는 과정이다. 무당은 춤을 추며 간간이 술을 마시는데 춤이 절라지면 무당은 입신 (入神) 상태로 들어간다. 이때 무방은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 남이 시퍼렇게 선 칼날 위에서도 사론히 춤을 추기도 한다.

세째는 이러한 입신상태에서 신의 뜻을 알려주는 신화과정인 것이다. 이때의 무당은 곧 신의 사자로 간주되며 말씀자는 무당 앞에서 정결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무장하고 의하여 표현되는 신의 계시를 경청한다. 굿의 극치는 여기에 있다. 무당은 죽음자의 목소리를 내기도하며 때로는 공중에서 취파람소리를 내기도하고, 옛여조 조상의 뜻을 가족에게 알리기도 한다.

81年度新輸入70㎜大型映画6本トリック完全立体音響!

巨匠 윌리암·와일러監督 오, 하느님! 정말 이 영화를 내가 만들었읍니까?
시사회 석상에서 "감독·윌리암·와일러

激烈한 闘争과 가슴치는 사랑!

아카데미賞11個部門独占受賞!
衣美編効音録撮男男監作
裝術輯果楽音影助主督品
優優
賞賞賞

글로즈 업

□ 서클등록에 즈음하여

# 「서클활동 활성화 되어야 한다」

## 학교-자격요건 갖추면 허가하나 학외적 규제요인 배제 할수없어

Ⅰ

학도호국단에서는 4월2일부터 4월4일까지 81학년도 서클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클등록에 관한 규정은 학도호국단 규칙 제13조와 서클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에 기준을 주고 있는바 학도호국단측은 기존의 인가서를 이외에도 신규 서클을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며, 특히 학술활동의 구체가 될 수 있는 서클의 인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다. 한편 서 넘은 학생처장은 비단가 이념서클에 대해서, 첫째, 전문적식을 갖춘 교수가 지도교수직을 겸학하고 둘째, 서클 고유의 학습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며 세째, 타학교와의 연합된 서클이 아닌 경우에 「학교적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나 학외적인 규제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에 기존의 24개 인가서클을 비롯하여 신규서클의 등록신청이 아울러 심사되는 이번 서클등록에 앞서 「서클활동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서클활동에 내재된 문제점을 살펴본다.

Ⅱ

대학내의 서클활동이란 각기 다양한 서클 자체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통해서 오랫동안 대학내 학생과의 활동의 주체로 인식되어왔다. 따로에 다수의 학생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서클활동에 참여해 왔고 또한 서클활동을 인간적인 폭을 넓히고 날카로운 이성을 가꾸며 비판정신을 습득하고 효과적으로 지식을 배양하며 체력을 연마하는 도장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학내외의 신경과민적인 「반심」으로 인하여 서클활동이 저나지게 규제되고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본교에는 25개의 인가된 서클이 활동해 왔는데 편의상 그들을 구분하면 체육—7 취미—4 예술—4 종교—3 봉사—2 단과—1의 순서로 되어있다. 그 이외에도 음성적으로 활동을 해온 여러개의 비인가 서클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난 서클의 양적인 결여수 부족과 질적인 타양성의 검검은 「서클등록 허가제」라는 근본적인 장애요인 때문인데 그것을 내용적으로 분석해 보면 첫째로 학술 및 이념을 추구하는 즉 무엇인가 학술적 이념적 차원에서 개인적 사회적 현상을 연구하고 토론하여 과학하려는 서클의 활동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대부분의 이러한 서클를 (갈무리반, 국제공산권사상 비교연구반, 사회경제학회, 밀림 연구반등) 들이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70년대에 들어서 자주 벌어졌던 학생운동이 소위 「이념서클」을 중심으로 주도되었다는 당오리엔티어링클럽등이 공존하지 못한 것이 그 예이다. 여기에는 제3자적 관점에서 느끼는 피상적 유사성이라는 이면에 경비의 지출을 줄이려는 학교당국의 의도도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세째로 서클등록 허가제하에서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자격요건의 강화이다. 특히 이들의 배후에는 지적요인 미달시 학교측의 일방적인 권한으로 등록취소를 행사할 수 있다는 커다란 압력이 개재하고 있다. 이상의 세가지 이외에도 여러가지의 요인이 대학내 서클의 다양화 내지는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대학을 놓고 볼 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의 갈래가 복잡한 반면 학생들의 서클활동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자칫 대학생활을 겉틀밖이로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징이다. 다시말해서 과외활동의 결핍으로 인한 이 연국의 무대는 인공자살에 반해한 곡인 최수를 수감하는 대서양 상의 오세인 모비섬이다.

제목 「아일랜드(Island)」는 바로 이 섬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상황 설 유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유폐의 상황은 그 곳이 육지로부터 격리된 섬이라는 공간적조건에서 비롯하는 것이나 그 신인의 폭수한 것은 아니며 「아일랜드」로 상징되는 —섬 밖의 곤충—남아공의 보려적 상황이다.

즉 「아일랜드」는 그 나라의 전반적 상황을 집약한 표본인 것이어서 그것은 로빈섬이기도 하고 동시에 남아공 사회 자체이기도 한것이다. 여기서 주동장 인물 존과 윌스톤에게 그들만의 폭수한 인상(죄수)을 부여함 없이 그들모부터 직접 그나라 국민들의 모습 그대로를 보아야할 필요가 생긴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은 시종 직접적인 해석을 곤란케하는 상징·복합적 구성·은유·우의·해학 등을 사용하고 있다. 표현력이 함지 않을 표현하는데 우회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정식의 작품만이 가능함은 당연한 일이며 그러나 그럼 복잡한 방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하려는 바를 정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의 가치가 있다.

사이렌이 울리는 곳, 길게 갇혀있는 듯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아일랜드의 윤곽이 드러난다. 외형적으로 사이렌은 신호수단에 불과하다. 작업거시·휴식·작업종료·취침·기상·위기의에 지나, 그러나 그것이 갖는 내밀한 의미는 인간 심리의 심층, 나아가 인간의 실존에까지 관련하는 것이다. 사이렌은 그것을 조작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위엄·권위·확인의 수단으로서 구체적 행동 없이도 피지배 를 조종할 수 있는 권리한 수단으로서 가능한 반면 그것을 들어야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굴욕과 놀안을 환기시키는 작용을 통하여 그들의 무력함을 확거짐 박탈이다. 두 동장 인물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행위하고 생각한다. 때로 그 무형적 압력이 구체화 될 때 그들은 분노하고 절망하고 피로워하거나 그것은 감시에 불과하고 결국 여전히 사이렌을 기정 사실로서 시인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장난이나 희상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그들의 오락은 애초에는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는 노력에서 의식적으로 시작된 것이기는 하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점차 그들은 본질적인 문제, 「왜 여기 있는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떠나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게임을 즐겨 중부하게 하는데 관심을 쏟게 된다. 물론 그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일체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의 의지가, 행동이 기대한 힘에 부딪혀 앞도 당했을 때 그 패배를 수긍하였으므로 그들에게 필수밖에 없었던데 불과하다. 그들의 의식은 살아 있었다. 그러나 또한 그 의식은 잠들어 버렸다. 이렇게 잠든 의식이 표면화되고 통찰을 거쳐 비로소 확고한 신념에 이르기까지는강한, 매우 강한 자극이 요구된다. 이것이 곡중에는 존의 형기 감형통고로 제시되어 있다. 무기 징역이 석달로 감형되실때 무기수가 받은 충격은…. 그것은 체념했던 자유에 대한 가능성 이 연국의 무대는 인공자살에 반해한 곡인 최수를 수감하는 대서양 상의 오세인 모비섬이다.

## 석방, 그것은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위치의 이동만을 결과하는 것이다

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같이 상반된 기정을 수행함으로써 사이렌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오직 한가지이다. 강압적 권위에의 한 피압박층의 원활한 통제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은 사이렌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곳에서는 인간 모두가 그 가치의 박탈을 겪는다는것이다.

그러나 사이렌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보다도 더욱 위험한 것 것은 그것에 길들여 진다는 사실이다. 상당한 기간동안 습관화되고 그 소리를 듣고 일단 그 신에 익숙해지면 이부도 그 의기를 의식하지 못하게 된다. 마치 어떤 냄새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그 냄새를 느끼지 못하게 되듯. 이미 사이렌으로 박탈된 의식은 졸려웠 그 위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그것은 그저 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있는 소음으로만 여겨질 뿐이다. 이것이 바로 사이렌의 상반된 기능 속에 내재하는 모순이다. 그것에서 연유되는 자기의 의의 인간이나 현상에 대한 무관심의 증가, 대학이 간직한 창조적 기능의 둔화, 과잉적인 규제와 간섭에 대한 반작용으로 벌어지는 비인간 서클활동의 경직화등이다.

Ⅱ

서클활동의 중요성과 부작용을 깊이 생각하여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대학내의 서클활동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각 서클의 활동에 메스가 가해져서는 안되며 그들의욕적 폭수성및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서클을 구성하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최소한의 시험학요를 거쳐 높은 이상을 실현하도록 책임의식을 지녀야 하며 학교와 당국은 그들의 이상이 표파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적인 제도적 정신적 경제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졸업생원제의 실시로 대학에 와서까지 「공부만 하자」 「한눈 팔지 말자」는 조경영 (趙慶學) 의 <미결대학생> 시리즈의 도래로 인하여 대학교육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바 이를 <미결대학생> 들의 진취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서클활동의 활성화는 빠른 시일내에 결연적으로 이룩되어야한다.

<취재부>

# 인터뷰

## 호국단 이미지 개선에 노력할터

□ 협의회 총학생장과 인터뷰

『제81학년도 본교의 학도호국단의 구성이 완료되었다. 김인회총학생장 (S—3) 을 만나 금년도 사업계획과 문제점, 포부등 몇가지를 들어본다.

—금년 사업계획은….

『금년도의 사업계획은 여러가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가장 큰 행사가 필<세민제>의 개최 이에서 아직 학교당국과 합의되지 않아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개 모의 월림리 축제 영어연극 종합학술제등으로 대개결정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부진했던 학술제를 활성화하여 1·2학기에 걸쳐 단과대학별로 모의 유연총회·모의재판·모의 주주총회등을 개최하여 명실공히 종합대학 학술제로 수준을 향상시키겠읍니다.』

—세민제개최에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에 관한 계획은….

『세민제의의 대표적인 행사로 하나인데 현재 학교당국과 개최에 따르는 경비문제와 개최시기에 따른 내용의 진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개최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성작으로는 작년도에 학교의 홍보활동이 미약했고 한편으로 종합대학 것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질적·양적인 성장을 이루어 금년가을에 개전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이어 바로는 학생활동의 순영은 어떻게요로 하는지….

『그 문제를 고려하여 이미 단비책정에도 반영을 하였으며 음인대학이 단과대학으로 독자적인 행사를 하는 것 이외에 학교 전체의 큰 행사는 할계 참여할 계획입니다.』

—서클활성화의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서클뿐만 아니라 그동안 음성적으로 활동하던 이념서클의 문제에 관해서는 대학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서클 활동을 위해서 그 주체가 되는 모든 서클이 허가를 받아 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총학생장으로서의 포부는 ….

『지금까지의 체재 하에서 학도호국단이란 명칭이 학생들에게 주어왔던 이미지와 상호불신을 부식시키도록느껴하고 학도호국단은학생과 학교를 연결하는 가교라 생각하고 현 상황하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구로서 학내 제반문제를 해결하겠읍니다. 특히 개방된 총학도호국단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대담·정리 오영태>

## 학도호국단의 이미지 개선하여 학교와 학생의 가교 역할 할터

최하도록 학교 당국과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이· 문제를 위해 소집된 단대학생장들의 모임에서는 이미 「게시판 원칙」에 합의를 보았고 게속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푸리가 마르며라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학기때 음인대학이 이것이 협의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깨달아 의식의 각성에 도달한다. 갖동이 국에 이르는 과정을 통하여 큰은 그동안 자신이 굳게 지켜왔던 신념이 관념적 허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원스톤은 한편한 결말을 거쳐 잊혀 왔던 목표를 되살리고 이제는 진정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된다.

그 의식의 표면화 과정에 있어서 자유를 억압받은 자와 유폐된 상황에남겨진 자와의 대비는 마치 음 음에 유리조각이 박힌 아픔과 연민을 수반한다. 이렇게 극한을 통하여 다져진 신념은 이제 결대로 잊혀지거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동의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석방이란 이제 더이상 의미가 없다. 석방 그것은 곧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위치의 이동만을 결과하는것이다. 왜냐하면 감방밖도 그 안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이 해야할 일은 단 한가지 그 신념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감옥안에 있거나 그것은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다시 처음과 같이 쥐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동작이 처음과같이 피로에 지치고 무기력한 것일 수는 없다. 그들은 잠정적인 이상을 집적하고있으며 온몸으로 진보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동작을 마무리하는 최후의 사이렌도 더이상 비일한 그의 의미를 고집할수 없다. <연극반>

## 학생들에게

김 명 수

<행정학과교수>

○…· 세월을 맞아 교수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바…○
○…·라는 것을 행정학과 김명수 교수님로부터듣…○
○…·는다. 앞으로 3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인데재…○
○…·학생은 물론 신입생들에게 도움이 될것으로 믿…○
○…·는다. <편집자주> …○

### 학생들에게

『1·2학년때 아무 것도 한것이 없는 것 같아 이제라도 공부 좀 해보려고 합니다.』『왜 그때 선생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읍니다. 후배들에게는 부조리 많이 시켜주십시오.』

여기에 인용된 말은 내가 외대에서 나의 교육생활을 시작한 이래, 재학생과 졸업생이 들려준 말중 인상깊게 남은 이야기 몇토막이다.

인했가는 나의 생각과 이제가지의 체험에서 얻은 바를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몇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한정하여 나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참고로 하여 보다 보람있는 대학생활을 보내기를 바랄 뿐이다.

### 교수와 학생

대학의 기초는 두말 할 나위 없이 교수와 학생이다. 교수와 학생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하겠다. 이것이 없다면 이미 교육은 있을수 없다. 신뢰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교수·학생 양측에서의 상호한 노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대학에 와서 학생들이 교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강의실에서의 강의내용만을 지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강의내용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나갈 방법을 배우는 일이다. 언제나 학생신분으로 남아 있을 수만은 없기때문이다. 학생들은 교수를 학생들이 당면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 가장 믿을 수 있는 상담자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캠퍼스에는 여러대, 유학전문 상담교수도 있고, 학생지도센터 상담교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당면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자기가 소속한 학과의 교수들을 제1차적 상담자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웬여 몇명의 학생이라도 자기가 속 대학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없이 그냥 대학문을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대학 4년은 사람에따라 길 수도 있고 짧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제대로 생각한번 해보지 못하고, 즉 의식적인 결정한번 내려보지 못하고, 흔들가 하는데로 따라 하다가 졸업에 임하게 될 우려도 없지 않다. 교수를 가까이하여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얻도록 스스로 노력하기를 바란다.

<계속>

### 의식적인 결정 한번 못하고 대학 졸업하는 경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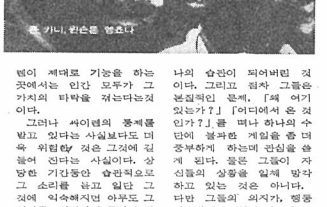
위하여는 교수·학생 양측에서의 상호한 노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대학에 와서 학생들이 교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강의실에서의 강의내용만을 지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강의내용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나갈 방법을 배우는 일이다. 언제나 학생신분으로 남아 있을 수만은 없기때문이다. 학생들은 교수를 학생들이 당면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 가장 믿을 수 있는 상담자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캠퍼스에는 여러대, 유학전문 상담교수도 있고, 학생지도센터 상담교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당면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자기가 소속한 학과의 교수들을 제1차적 상담자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웬여 몇명의 학생이라도 자기가 속 대학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없이 그냥 대학문을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대학 4년은 사람에따라 길 수도 있고 짧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제대로 생각한번 해보지 못하고, 즉 의식적인 결정한번 내려보지 못하고, 흔들가 하는데로 따라 하다가 졸업에 임하게 될 우려도 없지 않다. 교수를 가까이하여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얻도록 스스로 노력하기를 바란다.

<계속>



존 카니, 윌슨을 껴안다

「아일랜드」는 남아공화국의 아폴·후카드, 존·카니, 윌스톤 캠프나 3인이 공동구성한 연극이다. 남아공화국의 상황을 우회적 표현방법을 통해 묘사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실험극단」에 의해 초연되어 현재까지 10만을 넘는 관객을 동원하였으며 이번 본교의 신입생 환영공연 작품으로 상연될 예정으로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 을긋불긋한 배경의 증명사진

○—학기초에는, 제증명서의 발급을 받기 위해 증명사진이 필요하다는 전 재학생이라면 경험으로 다 아는 사실.

그런데, 그 사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몇몇 혼산즈는 입기 을법으로 컬러 흑백 가리지 않고 배경까지 들어간 멋진 사진을 입금부위만 오려붙였다는 것, 기일내에 발급받으려는 그 정성은 가상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진을 어떻게 붙이야하오리까.

○—도서관 2·3층 로비의 외국어 연마이동하여 (?) 무식간 공부를 위하여 일본유식을 취하고자 했던 혼산즈들을 당황케하였다. 그런데 무엇인가 해 보고자 도서관을 찾는 이들에게는 로비스트들의 (?) 박학한 말씨연기와 소음이 사라진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하오나 순간의 편리함을 앞아간 것으로 허탈한지 빙빈공간이 허전한 것인지 아릇듯 쓸쓸말씀하오.

○—아침 저녁 시내를 활보하고 있는 녹색 스쿨버스와 선명하게 빛을 발하는 학교명칭이 아직도 「한국 외국어대학」.

한숨으로도 타공을 수 있는 보여 되지 않는 수의 버스나마 홍보, 홍보 발만 하지 말고 좀 한 번 써 보시구려. 또 이름만 「한국외국어대학」로 고치지마시고 겉은 차치하더라도 앞쯤 고려해서 학생들에게도 권리를….

○—지성의 전당 이문빌관이 요 입지역으로 진단받아.

별로 크지않은 캠퍼스에 상주하는 합배경초의 밀도가 세계최대.

살찔대는 봄바람에 미비로바의 게나리가 이런 환경에서 「꿀가 발가」 방울인마나 학생들이여 어떻게 하시겠소. 여연가인 크로니클자(子) 도 엉거주춤.

○—3월 24일 밤 10시 30분경 보문앞에서는 때아닌 술렁거림이 있어 내리는 반비에 「혹시나」하고 잔뜩 긴장을 하고 내용을 알아 본 즉.

선로사정상 전철의 운행이 중지된때다 이날따라 버스마저 동행 귀가를 서두르는 대열의 파 충우돌로 관명나.

밤늦도록 공부하자는 열의를 계

大學英語
教養, 留学, 就職, 大学院試験準備
開講 ⇨ 4月 1日
留学英語
高級英作
英文解釋①②③
BEST TOEFL
AFKN·TOEFL LC
三位一体, TIME
English 900 会話
민병철生活英語 DIGEST
Word power 基礎会話,
TOEFL 就職英語
美人会話 構文解釈
Vocabulary 22,000 (12,000)
TOEFL 留学英語
大学編入英語 成文綜合英語
初級英作文, 英語実力基礎
英文讀解·大学教養英語
留学国史 国民倫理
初級日語, 中級日語, 高級日語
日語会話, 日語讀解, ダイジエスト
独逸語文法完成, 独文解釈
院長: 文昌淳
종로2가종각뒤EMI자리
72-9226, 74-2442
英·日·独
時事英語學院

BEST TOEFL
時事英語学院 金亨雲著
■4×6배판 495page ₩ 6,000
■Cassette Tape 3권 ₩ 9,000
最高の権威
留学英語の
完全革新版
출시자를 위한 미국 Educational Testing Service발행의 안내서 (Bulletion of Information & Application) 완전해설.
개정 실시되고 있는 최신문제 및 신구형 TOEFL문제의 상세한 비교.
TOEFL영어의 중요한 분야(문법, 문형, 어휘, 독해력)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정리.
Listening Comprehension을 위한 Cassette Tape (3권) 별도 판매.
도서출판 三志社 254-4560
(총판)한국출판협동조합 72-7185
SAMJI BOOKS

7판 발행
★전국 서점 판매중★
새생활 소도법
400P 책을 단2분내에 읽고 이해할수 있는 방법
◎본 연구원에서는 완성시까지 저자 직접지도함
특수보안용지사용
값 5,000원
새생활속독교육연구원
원장: 김용진著
☎763-6683
새로운문화사
서울·종로구 종로5가 51-1
763-6683·763-4701

종로2가12(통일빌딩3층)
☎74-9552
높아지는 근시를 렌즈로 예방하자.
한국소프트렌즈
새로나온 하이파신소프트렌즈
특징: 종래의 소프트렌즈보다 두께가 얇으며 산소투과성이 우수하며 피로감, 충혈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등 여러가지 특징을 가진 렌즈입니다.

검안사들의 따라서 광신안경

獨文化學院
—어학 강좌 안내—
□독일어□
○초·중·고급 문법
○초·중·고급 해석
○독일인회화 (G·I·Q~Ⅳ)
○독작문
○과학독어
○Das Beste
○속성반
□영 어□
○Vocabulary
○TOEFL
○영문해석 연구
○TIME
○출지보 2가 국민은행 맞은편 골목.
○개강: 4월1일 (수)
267—3569

대한YMCA연합회
대한YMCA연합회 대한YMCA연합회
대한YMCA연합회 대한YMCA연합회
대한YMCA연합회 

# 노예 그 성인인가 콤플렉스인가

## 동남아 해외 연수를 다녀와서 <2>

정 길 화

오로서는 심히한 것이다. 더우기 성부른 동경(東京)과 선망이 개입되었을 경우, 현장에서 보는 일본은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빌딩이 된다. 아무리 고개를 쳐들어 제쳐도 그 육상을 볼 수 없는.

그러기에 5박6일간의 일본 여정을 회고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껏 불쾌한 오심(惡心)으로 남아있는 몇 개의 상화를 다시 떠올려야 하는 고통의 작업일 수밖에 없다. 수술후 마취에서 깨어난 환자가 그제서야 전신의 통전한 아픔에서 괴로와 하듯, 부패되동의 가수(假睡)에서 깨어난 지금 새삼스럽게 느끼는 동통은 우난히 해 일본에서의 그것이 「몇% 빠졌다」였다는 사실은 우리 세대의 일본관을 적나라하게 가늠하는 상징적인 징표일수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로서의 굴절된 의식과 감정의 대입을 식민지 세대에서 유전받아 감정적인 차원의 배입 사상을 가졌으나 공복감은 유전자의 감재명질이 뫼고 벌등감은 전주 일본의 입경난 경제력에 이중갈갑한 그것. 그것 밖이다.

Ⅵ

어떻게 보면 「몇% 빠졌다」는 것은 단지 시골사람이 서울에 왔을때 갑자스럽 발목잡 일에서의 소박한 자기방어와 같은 수단으로 표현되었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촌놈은 아무리 까불어도 촌놈」이니 「아예 촌놈답게 욕으로 가만있어야 한다」는 식의, 하지만 그렇다는 치더라도 그것은 노예근성이 촌놈을 콤플렉스로 변용되었다는 이상의 것은 못된다. 그 어느 측이거나 깊은 피해의식이 깔려 있음은 말할것도 없다.

나폴 일제(日帝)가 착한 우리를 집어 삼켰다는 식의 전(前)정치 의식적인 몽매주의의 고착에서 헤어나야 한다. 사실은 강한 일제가 약한 우리를 집어 삼킨 것이다. (최인훈) 제국주의 일인에 대한 증오를 일본 그 자체에 대한 증오로 착각하는 것은 무지에서 연유된다. 이른바 상대화의 사상비판 능력이 아직도 우리에겐 없다. (김윤식) 그래 그렇기도 모른다. 그러나 그 「탈(脫)고착」과 「상대화의…」능력 이전에 우리에게 보다 필요한 것은 냉엄한 역사의 리얼리즘에 대한 자기확인이 아닐까 한다. 우리 일행중의 한 사람이 말했듯 『내가 국민학교 1학년때 해방이 되어 일본이랑 그이상 배우지 못했읍니다. 일본어로 대화할수 없어 미안합니다.』 와 같은 천박한 기억상실증이 치유되지 않은 한 주체적 대입(對日) 자세는 요원하다는 생각이다. 「용서하되 잊어서는 안된」 일본의 여행은 일곡 그처럼 시금털털한 감정의 쓰레기만을 얻은 셈이었다.

첫 해외여행이란 1번타자가 당하는 슬픔의 피해에 부대끼며 보낸 봉산 9박10일은 몇장의 사진과 몇줄의 피학적인 감상 (感傷)으로 간신히 흔적을 부여잡을수 있다. 일법을 접쳐놓고 지난 여정을 더듬고 있노라면 갓가지 추억으로 잠시 세계시민의 착각에 사로잡힌다.

<맺음>

△서울에서 서구영산인화랑 주신하고있는 우리로서 즐겁심든 일본은 우리에게 하나의 꼬뜬이 된다. 근대화와 사회보존의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것인지는 일본에서도 과제가 아닐수 없다.

빼아픈 것이다.

Ⅴ.

늦깨 대로 일본은 부유하고 번영되 나타났다. 허세욕 시인의 시귀에서처럼 「낙엽에 떨어지는 가을비」와도 같이 어지러이 오고가는 보오코오의 지하철망(지철과 인간의 것을 합해 10개가 넘는 노선이 망라다 해당는다) 아키아바라(秋葉原) 거리를 메운 전자제품 상가와, 다운타운마다 솟비한 도쿄탑지 서정이며 조르노 극장과, 「일본공장상」의 버젓한 간판과…간식기 아파 오는 배불 싸 쥐고, 넋어난 트랜크(여인에 있을 때면 해도 가비압기 그지없던 그것이) 에 송곳거리는 일행을 곳아 입에입맥 따라 다음 질서라 써먹던 우리를 이니 일본방을 방자마자 일순(一瞬)다들 빌어리가 되었다. 그리고 빼사에 조심조심이다. 탑배정초를 버릴때도 주위를 둘러 보고, 꺼리꺼리 얘기할때 소곤소곤 낮게 「따 빠쓰 하오쿠하오 (가스빌好不好, 8월까지로 합시다의 중국말)」 씀에 해방하는 「모도 마에데 구다사이(もっと まえてください)」는 어디든가 사라지고 모두 「Please discount a little.」이다. 그리고 명여 누가 초명길에서 있을 수 있는 해프닝을 연출할라치면 『몇% 빠졌어?』 하고 군기를 드리는다.

지나친 확대해석인지는 모르나, 미일에서의 유형이가 「심탄 운운」이었던데 비해 일본에서는 그것이 「몇% 빠지다」였다는 사실은 우리 세대의 일본관을 적나라하게 가늠하는 상징적인 징표일수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로서의 굴절된 의식과 감정의 대입을 식민지 세대에서 유전받아 감정적인 차원의 배입 사상을 가졌으나 공복감은 유전자의 감재명질이 뫼고 벌등감은 전주 일본의 입경난 경제력에 이중갈갑한 그것. 그것 밖이다.

Ⅵ

어떻게 보면 「몇% 빠졌다」는 것은 단지 시골사람이 서울에 왔을때 갑자스럽 발목잡 일에서의 소박한 자기방어와 같은 수단으로 표현되었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촌놈은 아무리 까불어도 촌놈」이니 「아예 촌놈답게 욕으로 가만있어야 한다」는 식의, 하지만 그렇다는 치더라도 그것은 노예근성이 촌놈을 콤플렉스로 변용되었다는 이상의 것은 못된다. 그 어느 측이거나 깊은 피해의식이 깔려 있음은 말할것도 없다.

나폴 일제(日帝)가 착한 우리를 집어 삼켰다는 식의 전(前)정치 의식적인 몽매주의의 고착에서 헤어나야 한다. 사실은 강한 일제가 약한 우리를 집어 삼킨 것이다. (최인훈) 제국주의 일인에 대한 증오를 일본 그 자체에 대한 증오로 착각하는 것은 무지에서 연유된다. 이른바 상대화의 사상비판 능력이 아직도 우리에겐 없다. (김윤식) 그래 그렇기도 모른다. 그러나 그 「탈(脫)고착」과 「상대화의…」능력 이전에 우리에게 보다 필요한 것은 냉엄한 역사의 리얼리즘에 대한 자기확인이 아닐까 한다. 우리 일행중의 한 사람이 말했듯 『내가 국민학교 1학년때 해방이 되어 일본어랑 그이상 배우지 못했읍니다. 일본어로 대화할수 없어 미안합니다.』와 같은 천박한 기억상실증이 치유되지 않은 한 주체적 대입(對日) 자세는 요원하다는 생각이다. 「용서하되 잊어서는 안된」 일본의 여행은 일곡 그처럼 시금털털한 감정의 쓰레기만을 얻은 셈이었다.

첫 해외여행이란 1번타자가 당하는 슬픔의 피해에 부대끼며 보낸 봉산 9박10일은 몇장의 사진과 몇줄의 피학적인 감상 (感傷)으로 간신히 흔적을 부여잡을수 있다. 일법을 접쳐놓고 지난 여정을 더듬고 있노라면 갓가지 추억으로 잠시 세계시민의 착각에 사로잡힌다.

<맺음>

△서울에서 서구영산인화랑 주신하고있는 우리로서 즐겁심든 일본은 우리에게 하나의 꼬뜬이 된다. 근대화와 사회보존의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것인지는 일본에서도 과제가 아닐수 없다.

# 한성문방구점

## 어떤 方式

민완기

# 교수수상

## 도편수의 긍지

학촌(鶴村) 이범선 편 ②

경상도에는 <서울 깜쟁이>라는 말이 있다 한다.

그 말의 뜻인즉 서울서는 밥을 쌀은 인부들이 죽들이 함께 더너며 밥을 쌀아 주는데 그 쌀은 밥이 일곤들이 자리를 트자 곧 부녀겁만치 되는데로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 일곤은 죽 투사람이 같이 다닌다다. 밥을 다 쌀고는 한 사람은 밥이 부녀지지 않도록 동으로 밥고 있고 한 사람은 집주인한테 가서 돈을 받는단다. 그렇게 돈받아와보면 두 일곤은 그대로 곧목밖으로 달아나고 그와 동시에 쌀은 탑은 와트르 주저앉는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남의 일을 그저 되는데로 무책임하게 해 주는 사람을 가르켜 서울 깜쟁이라고 한다.

이 이야기는 서울사람들이 서울사람들의 즐겨 않은 점을 익살스레 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겠으나 어떤 면 그것은 사실이기도 하다.

집에서 하수도를 수리한다든가 상수도를 끌어 들인다든가 그밖에 무슨 자심구려한 일을 시켜보면 경상도 사람들의 익살이 노상 근거없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한번은 하수도를 고쳤더니 물이 빠져나가는게 아니라 도리어 머리로 물이 안으로 흘러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웃에 사는 그 사람을 다시 불러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일곤의 대답이 참 걸작이다. 그거야 할 수 없지 않느냐 표전을 묻기는 분명 물었는데 물이 들어오는 걸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다시 써라 할 밖이 없었다. 하기야 그의 말대로 물이 들어 오는 것으로 보아 표전을 묻은 것은 사실이기가, 하는 수 없이 한 일군을 데어 파해지고 다시 놓았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물이 빠진다.

또 한번은 어린애의 사쓰를 사러 상점에 들른 일이 있다. 원쉽이 내 놓은 물건이 집에 있는 어린애에게 좀 작을것 같았다. 그것은 우리애한테는 좀 작을 것 같으니 그보다 큰 것을 보여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 상점에는 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양으로 원쉽은 그 작은 사쓰를 그대로 권하면서 하는 말이 참 어처구니 없었다.

「아 요거면 꼭 맞을텐데 공연히 그러시는군요」

도대체 나보선 처음 들어간 상점 점원이 본일도 없는 남의 어린애의 몸집을 어떻게 알고 하는 말인지 데답도 하기 싫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이 너무 흔하다.

무책임! 그 말이나 행동이 무책임하기 이를데 없다. 아니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수작을 논도 하나 말짱 안하고 거침없이 하는 것이다.

인간이 싫어진다.

그에 비하면 옛사람들은 얼마나 성실했는지 모른다. 여기 지금 그린 일군이나 상인하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한 폭수 이야기가 있다.

나의 고향집은 지은지가 근 칠팔십년이나 되는 고가였다. 어른들의 이야기에 아가며라는 것이다.

무엇을 하는가 따라가 보았더니, 어련가!

그 도편수는 한눈을 지긋이 감고 부모하여 드리워진 실을 한손에 높이 쳐들고 서서 집기둥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 기둥이 혹 그동안 팔년에 기울어지지나 않았는가 염려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기둥을 검사하고 난 도편수는 실을 거두며, 「그럼 그렇지! 고� 있을리가 있나」하면서 그는 은근에 만족한 웃음을 띄고 기둥을 숨숨쉬어 보더라는 것이다.

어려서 할아버지한테서들은 그 진정 예술품이다. 그런데 그 석가탑을 만든 석공 아무개 아사녀의 전설은 또 얼마나 슬픈 일이었던가.

옛사람들이라고 해서 그저 세월 좋아 한가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또 그들대로 그 당시의 고민이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성실했었다. 하다못해 무릎앞에 낭보석 하나 상석 하나를 만들어 세우는 데도 그들은 자기의 있는 힘을 다했고 성심껏 했던 것이다.

팔년만에 지나다 자기가 지은 집을 찾아드는 그 도편수의 심정,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기둥부터 검사부터 하는 그 책임감, 그리고 거기 이상이 없음을 보고 만년에 미소를 띄는 그 긍지.

그에 비하여 보잔은 분명 놀았으니 물이 흘러내리든 흘러오든 그거야 내할 바 아니다 하는 그 인부와, 또 한번 본 일도 없는 남의 어린애의 몸집을 제멋대로 추측하여 어린애 아버지가 화냈다는 웃음 짝 받을 거라고 우기는 이런 상인을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할까?



# 생활소재

## 「영미시와 한국시」

이 영 걸지음

英美詩와 韓國詩

李永傑 著

학문상 (學文賞)을 개설으로서 스스로를 정립시키고 문학에 정진해 온 시인이자 영문학자인 본교 이영걸교수가 「영미시와 한국시」를 내놓으셨다.

현대시의 주요 문제를 명쾌히 다룬 시론으로 시에 대한 열정과 비범한 감수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책은 현대시 이해와 향수에 이바지 할 뿐만 아니라 시와 인생과의 상관성을 돌봄히 조명하고 있어 현대시의 성격과 방향에도 많은 점을 시사한다.

제Ⅰ부에서는 한국시와 영미시라는 제하에 영미시 이해·수용의 문제와 함께 시의 요소와 방법에 대한 비교와 대조가 있고 제Ⅱ부에서는 한국시인론을 다루면서 기독교와 한국시의 연관성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있다. 제3부에서는 영미시인론으로 로버트 프로스트의 인생론적 의의와 엘리어트의 시간관에서 시작하여 프로스트, 딕키, 심킨에 이르는 시인론이 있다.

전체적으로 현대시의 주요한 양상을 다양한 문제에서 다루는 이 시론집은 관심의 일관성과 폭을 통시적으로 제시한다.

<문학예술사간·크라운판404면 국4,500원>

## 「1950년대의 인식」

진덕규 한배호 김학준 한승주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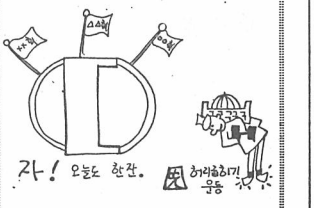
1950年代의 認識

한국현대사에 있어서 1950년대의 위상과 성격을 간명하였다.

「해방전후사의인식」의 속편의 성격을 지는 것으로, 50년대의 정치·경제 전반에 걸쳐 논리적 접근을 시도한다. 일제의 36년 식민통치, 그리고 자주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해방에 이어 닥쳐 온, 이승만시대 혹은 자유당시대를 접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방향과 이념을 민족사적 시각으로 해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방>이 국제정치의 파워폴리티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민족문제로 부딪치고 있는 분단상황이 냉전체제의 한 산물이었다면, 냉전의 본위가 고조된 50년대에 관한 분석은 바로 국제적 냉전의 구조를 전제함으로써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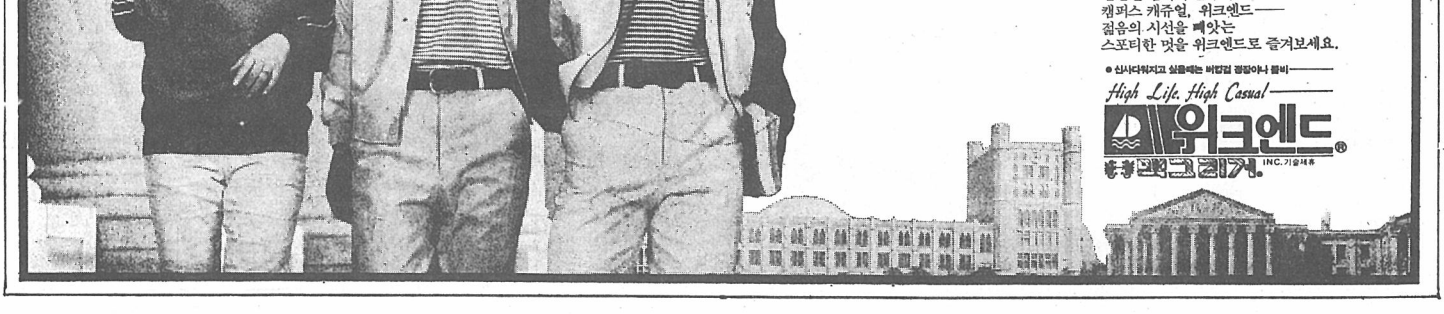
이 책은 또한 2차대전의 종식과 함께 한반도에 밀려든 열강의 이해관계가 그속에서 삶을 지향하는 민중들의 생활전반에 어떻게 투영되었는가, 식민지적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민족의 실책이 1950년사, 그리고 그 이후의 우리 현대사를 어떻게 굴절시켜 왔는가 하는 문제를 따져 보고 있는 이 책은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보완하고 있다. <한길사간·크라운판520면 국4,500원>

## 외대만평




## 제19회 외대문학상 현상모집

외대학보에서는 제19회 외대문학상 응모작품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제정이래 19이란 연륜을 거듭하면서 기성문단에 기라성같은 문인들을 다수 배출한바 있는 외대문학상은 외대인들의 문학풍토를 진작하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특히 대망의 종합대학 승격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학풍토의 배양과 외대 문인의 산실로써 성장키 위하여 외대인들의 끊임없는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집부문: 시 (2편이상) 소설 (60매내외) 평론 (50 〃 ) 번역 (50 〃 )
접 수 처: 외대신문사 (학생회관 311호)
마 감: 1981년 6월말
심사위원: 주후임표
상 금: 〃

외 대 신 문 사